

## 선수단 중 27명 '집단 감염' 레슬링대표팀 코로나 비상

도쿄올림픽 출전권 위해 카자흐스탄 국제대회 출전 귀국 27명중 12명·불가리아 체류 23명중 15명 확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국제대회에 참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된 레슬링대표팀의 상황이 심각치 않다.

대한레슬링협회는 28일 "국제대회에 파견됐던 대표팀 선수단 중 2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후 4시 기준, 귀국 선수단 27명 중 12명, 불가리아 체류 23명 중 15명이다.

레슬링대표팀은 올림픽 티켓 획득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아시아 쿼터 대회에 출전했다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19일 먼저 귀국한 여자대표팀 선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일 귀국한 선수 3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 쿼터대회를 통과하지 못해 귀국하지 않고 곧장 불가리아 소피아로 이동한 선수단 중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2일까지 귀국한 코치 1명과 남녀선수 1명씩, 총 3명이 감염됐다.

불가리아 현지 상황도 심각하다. 지도자 2명과 파견 심판 1명이 격리 조치됐고 처음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한 선수가 국내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6일에는 무려 1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28일에도 처음 음성을 받았던 선수 1명이 코로나19 추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귀국한 일행 중 4명도 재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분류됐다.

레슬링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불가리아 대사관과 협력해 선수단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가리아 현지에서 계속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귀국을 원하는 인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남정원 기자 yoshike3@donga.com

## "이름값만으로 선수 뽑지않아 예비명단은 4명 합류 검토중"

▶'올림픽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의 자신감' 1면에서 이어집니다

김 감독은 24일 백승호(전북 현대)를 보기위해 전북과 강원FC의 경기가 열린 춘천을 찾기도 했다. 그는 "다른 경기를 볼 예정이었는데 백승호가 선발로 나온다는 말에 목적지를 바꿨다. 어느 정도 인지 보려갔다"고 운을 떼며 "이름값만으로, 해외에서 뭘 선수라고 선발하지 않는다. 이승우(포르티모넨스), 이강인(발렌시아),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를 같은 선상에 올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보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 ●일본 동행 인원, '18+4' 고려

김 감독은 6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주장을 활용해 치를 평가전(미정)에서 선수 26명 가량을 소집해 테스트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에 나설 18명(와일드카드 3명 포함) 및 예비명단 4명을 6월 30일까지 FIFA에 제출해야 한다.

김 감독은 모든 걸 철저히 대비할 참이다. 18명 이외에 예비명단 4명도 올림픽에 동행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부상자 발생 등으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선수를 대회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감독은 "예비명단(4명) 선수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4명을 데려갈 경우, 팀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부상자나 팀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비명단(50명)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6월 소집 기간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파는 현지 접종이 불가능해 귀국 후 국내에서 접종한다. 접종 일정은 개인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심쿵' 육준서...대형기획사들 러브콜 쇄도

연예인 뺨치는 외모...1회부터 인기 이미 각종 패션 화보 촬영도 휩쓸어 본업은 미술작가... "조만간 전시회" 약체 우려 깨고 생존, 김민수도 돌풍 래퍼 정태군 "힙합이네!" 매력 발산



김민수 정태군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가 강력한 화제를 발판삼아 인기 프로그램 반열에 우뚝

올라섰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병대수색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해난구조전대(SSU) 등 6개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대결을 담아내면서 특히 새로운 '스타'까지 탄생시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방송한 뒤 초반에는 특전사 리더이자 트로트 가수 박군(박준우), 해병대수색대 팀장인 가수 오종혁 등 시청자 시선에 낯익은 연예인들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UDT 육준서, SDT 김민수, 특전사 정태군 등도 이들 못지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육준서는 '강철부대'가 낳은 최고의 화제 인물로 꼽힌다. 1회에서 "방송 나가면 분명 난리날 것"이라는 '전략분석팀'의 멤버인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관측이 딱 들어맞았다. 그는 방송 이후 SNS에서 24만 팔로워를 모으는 등 곧바로 'SN' 스타가 됐다.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몸매만이 인기 요인은 아니다. 다른 예비역들이 "저게 UDT"라며 혀를 내두를 만큼 강한 승부욕과 집념을 드러내며 프로그램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육준서를 향한 관심은 방송가 안팎에서 이어진다. 최근 여러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패션 화보 촬영

으로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당분간 본래 직업인 미술작가 활동에 집중할 전망이다. 화보 인터뷰 등을 통해 "조만간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민수와 정태군도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김민수는 평균 25세인 SDT의 수장으로서 패기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부대 예비역보다 경험이 부족해 최악체로 꼽혔지만, "약으로 강으로!"라는 구호로 팀원들을 이끌면서 각종 미션에서 연속 생존해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최근 권총 사격 대결에서 심리싸움 끝에 UDT 정준현을 제치는 반전도 만들어냈다.

정태군은 본업인 래퍼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차분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특하면 "힙합이네!"라는 감탄사를 연발해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리더 박준우를 따르는 '박군바라기'로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블제이라는 활동명으로 2014년부터 선보인 '사냥개' 등 과거 노래도 세삼 조명되고 있다.

한편 '강철부대'는 27일 시청률 4.8%(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TV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4월 4주차(19일~25일) 비드라마 화제성 차트 3위에 랭크됐다. 28일 티빙 '실시간 인기 프로그램' 2위에 오르는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의 예비역 참가자인 UDT 육준서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채널A

## "유럽애들은 뭐 정정이 윤정이 막 부르더라. 애, 오늘은 다 용서해줄게"

윤여정 말투 빗댄 '휴먼여정체' 돌풍 탈권위적...젊은세대까지 사로잡아



▶ 윤여정이 26일(한국시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기념해 찍은 30초짜리 동영상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윤여정이 시상식 후 텅 빈 극장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트로피를 깜빡 잊은 코믹한 상황극의 한 장면. 사진출처 | 아카데미 시상식 인스타그램

"브래드 피트,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만났네 이렇게. 영화 찍을 때는 어땠는데? 아니 너무 고맙구, 알지. 나는 한국배우 윤여정인데 유럽애들은 뭐 정정이 윤정이 막 부르더라. 애, 오늘은 다 용서해줄게. ..., 우리 다 잘알어. 글렌 클로즈 얼마 안 전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는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맥들보다 내가 운이 좋았다..."

윤여정이 '미나리'로 26일(이하 한국시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뒤 온라인상 확산하고 있는 그의 수상 소감 '휴먼여정체 번역본'이다. 이날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윤여정의 영어 소감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다시 그의 평소 말투에 빗대 표현한 패러디물이다. 최근 한 누리꾼이 SNS를 통해 공개하자 많은 이들이 이미지 파일로 공유

하고 있다. 실제 입소리를 내어 읽어보면 윤여정의 말투를 실감케 한다.

윤여정을 모델로 내세운 패션 플랫폼 브랜드 지그재그도 그의 수상 이후 앱 소개글을 '휴먼여정체'로 바꿨다. 지그재그는 자사 앱 소개글에서 "어우 저기야. 내 정신 좀 봐. 해택 탭 열린 걸 깜빡했네" 등 윤여정의 말투를 옮겨 놓았다. 윤여정은 최근 지그재그 광고모델로 등장해 "나한테 이런 역할이 들어왔다. 젊고 예쁜 애들도 많은데... 이 광고 잘못 들어온 거 아니니? 자세히 알아봐 진짜인가"라는 카피 대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배우 김혜수는 2013년 tvN '꽃보다 누나'에서 윤여정이 한 말을 옮겨 선포의 수상을 축하했다. 그는 SNS에 "육십이 돼도 인생을 몰라요.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이 처음이야.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계획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나마 하는 거는 하나씩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나이 들면서 붙잡지 않는 것"이라는 윤여정의 발언을 올려 박수를 보냈다. '꽃보다 누나'를 비롯해 '윤식당' '윤스테이' 등 윤여정을 내세운 예능프로그램을 선보여온 tvN도 SNS를

통해 "애,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머? 핑큐다 핑큐"라며 그의 수상 소식을 알렸다.

이처럼 윤여정 특유의 거침없고 빠른 말투를 가리키는 '휴먼여정체'는 그의 강한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특히 솔직하고 당당하며 탈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윤여정 어록'과 어울려 젊은 세대의 감성까지 사로잡고 있다. 윤여정의 한국배우 최초 영광이 일으킨 신선한 파장과 함께 당분간 '신드롬'에 가까운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자진강판' 류현진...기존 로테이션대로 등판

애틀랜타와 3연전에 출격 가능성

이닝 소화와 무엇보다 중시하는 에이스의 자진강판. 구단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이상 없이 루틴을 소화하고 있다. 부상자명단(II) 등재 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니 다시 위용을 뽐낼 일만 남았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28일(한국시간) 현지 언론과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큰 이상이 없다. 기존의 루틴을 소화하고 있다. II에 오르지 않고 기존 로테이션대로 등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26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원정



류현진

경기에 선발등판해 3.2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4회말 2사 1루에서 우측 투부 통증을 호소해 트레이너를 불렀고 스스로 강판을 결정했다. 당시 몬토요 감독은 "교체 후 잘 걸었다. 가벼운 부상"이라고 설명했다며 류현진도 "부상이 커지

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수 몸은 스스로가 잘 알기에 내린 결정이지만 예후를 살펴볼 필요는 있었다. 그러나 류현진이 이상 없이 로테이션을 소화하기 때문에 공백은 없을 전망이다. 토론토는 5월 1일부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3연전을 치른다. 류현진은 이 시리즈에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